

여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호응'... 취업 등용문

24년부터 총 388명 근무... 올해 하반기 285명 선발, 어촌 일자리 활력

A : 필리핀에서 3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남편과 세 아들이 함께 어렵게 산 노동자 제씨(여/34세)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여수시의 어업분야 계절근로자(굴 양식장)로 참여해 최근 15평 규모의 새집을 마련했다. 그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갖게 됐다.

B : 세 딸과 아내, 장인·장모와 같이 어렵게 사는 마이클(남/33세) 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간 치료를 받지 못하던 아내의 병원비용을 계절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마련했다. 그는 이제 가족의 희망이자 자랑이 되었다.

한국과 필리핀을 연결한 '여수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단순 일자리 제공 차원을 넘어 필리핀 현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

로자 프로그램'은 시가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리핀 우바이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만 25세에서 40세 사이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388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관내 어촌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올해 하반기 근로자로는 384명 지원자 가운데 285명이 선발됐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만족도가 높아 재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많으며, 올해도 154명이 재고용됐다. 특히, 현장 소통과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로 무단 이탈률도 제로다. 앞서, 여수시는 2026년 하반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우바이(UBAY)시를 방문해 현지 채용 면접을 실시했다.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현

장에 적합한 인재를 직접 확인하고, 현지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매년 직접 현지에서 선발하고 있다.

면접은 체력검증과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며, 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책임감과 성실성, 근로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지원자들은 지난해보다 체력과 근로 의지가 매우 뛰어났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해준 덕분에 재고용 비율이 높고 무단이탈 없이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어촌 인력 공급과 상생형 고용 모델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 어촌에서 계절근로자들이 수산업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지방세 고충 해소!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순천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납세자가 겪는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지방세 상담은 물론 선정대리인 지원과 불복청구 납세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선정대리인은 영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세무사·회계사에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불복청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본격 운영

광양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장 상담 과정에서 스트레스 측정기를 활용해 스트레스 지수와 혈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초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을 발굴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과 전문의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1대1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마음 건

강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적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라남도와 연계해 온라인 마음상담 플랫폼 '터치마인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가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와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운영하며 지역 내 정신건강 안정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22일 화려한 개막

곡성군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개최하며 곡성의 봄을 장미 향으로 물들인다.

축제가 열리는 섬진강기차마을은 매년 수천만 송이 장미가 장관을 이루는 전국 대표 장미 명소다. 올해 축제는 '열여섯, 장미사춘기 - 설렘, 성장, 변화'를 주제로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올해 장미축제는 장미공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축제 공간을 기차마을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잔디광장에서 운영되던 '황금장미를 찾아라' 프로그램은 치치뿌뿌 놀이터 광장으로 이동했으며,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존도 함께 재배치했다. 이를 통해 축제장 곳곳에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포토존과 휴식 공간도 강화했다. 잔디광장에는 방문객들이 축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썸&샐렘 포토존'을 조성했으며, 축제장 곳곳에도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은 포토 공간을 마련해 걷는 즐거움을 더했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축제 첫날인 22일 오후 5시에는 지역민이 함께하는 '웰컴 로즈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미공원 버스킹 챌린지, 로맨틱 로즈 포토포즈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축제의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작은 정글' 기획전시 첫날 성황

구례군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생태교육 기획전시 「작은 정글」이 행사 첫날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획전시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일원에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행사 첫날에는 구례·순천·광양·곡성·담양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과 인솔교사 등 500여 명이 방문해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전시관 내부에서는 곤충, 파충류, 절지류, 양서류 등 다양한 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특별 전시가 운영됐으며, 전문 진행자의 설명과 함께 하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어린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생물들이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야외 공간에서는 밧줄놀이, 숲&캠핑 체험, 세계 전통놀이, 목공놀이 등 자연 친화형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아이들은 신체활동과 놀이 중심 체험을 통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며, 어린이 체험 중심의 참여형 생태문화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구례군은 행사 기간 동안 2,000~3,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와 현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